

여기 지금, 우리

최혜빈

내가 생각했던 2020년은 이렇게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하늘에 UFO 하나는 떠 다닐 줄 알았다. 그니까 나는 이렇게 역병이 돌고 트로트가 유행하고 집에서 커피나 5000번 짓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말이다.

코로나로 인 해 내 삶은 많이 변화 되었다. 친구들과 자주 가던 노래방도 PC방도 모두 못 가게 되었다. 끝이 있을 것 같던 내 시험 점수도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처음 접하게 된 온라인 수업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처음 본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내성적인 나에게 정말 곤욕이었다. 한동안 4월까지는 행복했다.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되는 건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다. 그러나 4월 중반이 지나가던 즈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별로였다. 결국 내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빨리 들을 수 있는가' 와 '인강 선생님의 성대모사' 밖에 없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고 시간은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다가올 시험도 생각 못 하고 하하 호호 놀며 지냈고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정말 나는 무방비한 상태였다.

무(無)인 상태에서의 공부는 쉬운게 아니었다. 그간 내가 빨리 들은 수업을 따라 잡기 위해 평소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다. 결과는 능지처참. 말 그대로 그냥 말아 먹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지 않았어서 2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코로

나로 인 해 그 걱정이 배가 되었다. 처음 맞이하는 시험에 나는 마치 무기를 갖추지 않고 전장에 뛰어드는 용사나 마찬가지였다. 갖추지 못 해 힘들었고 힘든 만큼 결과는 처참했다. 시험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 그래도 100등 안에 들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는 '아 제발 100등 안에만 들자'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역시 온라인 수업은 나 랑 안 맞다.

나는 평소 좀비물을 굉장히 못 보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좀비영화를 봤다면 그 날 밤을 좀비 바이러스 생각으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종종 만약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면 어찌 될지 생각하곤 한다. 근데 코로나19가 좀비 바이러스랑 정말 비슷한 것 같다. 집에서 나가 지도 못 하고 자유롭지 못 한 생활. 내 생각에서 좀비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웠는데 막상 비슷한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으니 뭐 별 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감으로 고생하던 우리들도 결국 이겨내고 백신을 만 들었으니까 충분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다.

생각하면 할수록 코로나는 단점밖에 없는데 막상 알고보면 장점도 있 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자연이 깨끗해졌고 비대면으 로 하는 수업이 많아져 핸드폰이나 영상통화 앱들도 많이 개발되었다.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대학생활은 어떻게 되고 내 수험생 시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코로나 가 종식되지 않는데도 나는 친구는 만나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속에서도 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영화 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던지, 연예인을 보러 콘서트를 간다 던지 비록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하지 못 하 지만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사실 집순이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연예인을 보러 콘서트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연예인 직캠 보면서 웃는게 더 좋다. 고로 나는 아주 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집순이라서 쉽게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와 다르게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집에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 사람 뼈 속까지 외향형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19로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두명이 아니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해결법을 찾아냈다.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그 나라의 풍경을 24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나서 밥을 먹는 대신 영상통화를 통해 원거리로 각자 먹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비디오를 올리는 앱에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달고나 커피 백번저어 만드는 수플레등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많은 영화들이 상영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먼저 개봉하기도 하였다.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 코로나도 있지만 다른 큰 일들도 정말 많았다. 내가 만약 커서 손주가 생긴다면 나는 이 할미 15살 맨 말이다~ 하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아 이때는 이랬었지' 하며 지금을 추억 할 시간이 나중에는 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없어지고 행복했던 원래의 일상들이 돌아 올 그 때까지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잘 해낼 것을 알기에 오늘도 열심히 나는 나만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나의 시간은 아직 여기, 흐르고 있으니까.